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월 27일 · 제342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글로벌 물류이슈 |

1. 물류와 사물인터넷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이란, 국제 사회의 제재 해제로 신 해운시장으로 부상
2. 美 부두운영사 Port America, 오클랜드항 '컨'터미널 철수
3. 중국 선박기인 배출가스 제한구역(ECA) 설정 및 시행 계획
4. 해운 산업의 5가지 트렌드

| 물류시장동향 |

1. 2015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 5.7% 증가
2. DHL, 댈러스 서비스센터 확장





글로벌 물류이슈

물류와 사물인터넷

- DP DHL(이하 "DHL")사는 시스코 컨설팅 서비스(이하 "시스코")사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물류와 사물인터넷(IoT)에 관한 보고서¹⁾를 발간함
 - DHL과 시스코의 공동보고서인 물류와 사물인터넷은 사물인터넷의 발전과정 및 향후 사물인터넷이 물류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분석한 것임
 -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물류시장에서의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New Business Model) 분야를 개발 및 향상시킨 경험들을 정리함

1. 사물인터넷 이해

- 사물인터넷의 정의는 다양하며, 사물인터넷 시장은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아 급속도로 발전 중임
 - 사물인터넷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컴퓨터 등의 각종 사물에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함
 - 시스코는 사물인터넷을 단순 명료하게 "사물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정의



자료 : www.dhl.com

1) "INTERNET OF THINGS IN LOGISTICS"를 요약 정리



- 현재 통신 기능 내장 및 네트워크와의 연결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사물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나, 숫자로는 전체 1.5 조 개의 사물들 중 150억 개에 이릅니다
-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이용기업은 2012년 이후 약 333% 증가하였고, 사물인터넷 활용 기업은 2012년에는 1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65%에 달함

2. 만물인터넷(IoE) VS. 사물인터넷(IoT)

- 전자기기만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을 뛰어넘어 모든 종류의 사물이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만물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
 - 시스코는 만물인터넷의 형태가 사물과 사물(M2M), 사물과 사람(M2P), 사람과 사람(P2P)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하며 또한 사물과 인터넷만의 네트워크 연결을 뛰어넘어 사물, 사람,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전례 없는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함
- 만물인터넷은 사물인터넷은 물론 클라우드, 빅데이터, IPv6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보다 광범위한 개념임

2. 만물인터넷(IoE) VS 사물인터넷(IoT)



자료 : www.dhl.com



3. 사물인터넷 시장

- 사물인터넷 시장은 향후 10년간 8조 달러(USD)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안에 만물인터넷 시장의 4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5가지 주요 분야(혁신, 자산 활용, SCM 및 물류, 직원 생산성 향상, 고객경험 강화)는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의 발전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물인터넷을 통해 SCM 및 물류 분야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며 향후 전체 사물인터넷 시장에 1조 9천억 달러(USD)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시스코의 에드자드 오버벡(Edzard Overbeek) 부회장은 사물인터넷 기술로 인해 사물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습득된 정보는 다양한 비즈니스 및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속도 및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3. 사물인터넷 시장



자료 : www.dhl.com

4. 물류와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은 물류분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사물인터넷은 창고운영, 화물운송, 라스트마일 배송 등 물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물류분야 내의 운영효율성, 안전 및 보안, 고객경험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물류중사업자는 자산의 상태(the status of assets), 배송되는 물품 및 고객의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 자산(Asset)의 성과와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음
 - 또한 사물인터넷은 자동화를 통해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수동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대한 축소하여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며 예측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즉, 물류기업들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원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물류기업들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며 사례 연구를 기업에 접목시킬 수 있음
- 물류산업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몇몇 물류기업은 이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 중에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DHL이 진행하는 알레테이아(Aletheia) 프로젝트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DHL 공급사슬망에 접목시켜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임
 - 물품의 분실, 오염, 지연 등은 물류의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추가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DHL은 본 알레테이아 프로젝트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자사 물류시스템에 접목시켜 물품의 상태를 즉각 보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DHL은 물품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멀티홉((Multi-Hop) 센서를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물품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만약 물품이송 중 문제가 발생하면 DHL 컨트롤 센터에 보내 즉각적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료 : www.dhl.com



- 사물인터넷은 기업 차량 및 자산관리(Fleet and Asset Management) 및 임직원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에도 접목되어 물류산업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물류기업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차량 및 자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상태확인을 통해 물류기업은 유지보수 상태 및 이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캐터필러(Caterpillar) 등의 기업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화물운전기사 등의 안전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전기사의 상태를 체크하는 등 임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5. 기업 차량 및 자산관리



자료 : www.dhl.com

- 현재 사물인터넷은 창고운영, 화물운송, 라스트마일 배송 등 공급사슬의 일부분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야 함
 - 다른 수단 또는 지능형 주차장과 연결되지 못하는 차량은 효과가 떨어지게 되며, 물류센터의 재고관리에만 이용되고 소매상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스마트 팔릿은 효용이 제한적임
- 사물인터넷은 공급사슬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인 관점에서 다른 자산과 연결되는 지능형 네트워크의 창출과 관리를 핵심적으로 요구함
- 다른 산업과의 연결 표준을 고려하기 전에, 물류산업에서 먼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함
 - 물류는 전형적으로 마진이 낮고 세분화된 산업*이나,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 특히 도로운송은 지역,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각기 다른 운영표준을 지닌 수만 개의 공급자가 존재
- 사물인터넷의 물류산업 활용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 차원에서 이종 산업간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한 독특한 식별수단 또는 태그(Tags)로 사용하기 위한 명확하게 표준화된 방법
 - 이질적인 환경에서 센서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막힘없는 상호운용(Seamless interoperability)



- 사물인터넷이 탑재된 공급사슬에서의 개인정보 문제(privacy issues) 극복과 데이터의 소유 및 신뢰 구축
- 명확하고 기준이 될 IoT용 아키텍처(Architecture) 마련
- 사물인터넷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비즈니스 태도의 변화

자료 : www.dhl.com, 2016.01.19

송주미 전문연구원
051-797-4773, jmsong@kmi.re.kr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이란, 국제 사회의 제재 해제로 신 해운시장으로 부상

- 2016년 1월 16일을 기해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에 세계 주요 해운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란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이 풀리고, 대 이란 무역이 재개되면서 물동량 증가 등 대 이란 경제 제재 해제 효과가 국제 해운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의 추가 생산 및 최근 저유가 기조가 상승작용을 하여 탱커 시장에 긍정적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옴
 - 탱커 운임은 최근 탱커시장이 과잉 공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원유의 생산 및 공급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달렸음
- 건화물선 시장은 이란의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서 건화물선 수요가 늘 것 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이란의 투자가 실현되어 물동량이 늘어난 이후로 나타나는 충격의 정도를 감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이란의 주요 항만



자료 : http://www.worldportsource.com/ports/maps/ARE_Khalifa_Port_240.php, 2106.1.24 검색.



- 컨테이너선 시장은 아시아계 선사들 포함해 몇몇 선사들이 이미 이란 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세계 최대선사 Maersk Line은 이란 기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얼라이언스 2M의 파트너인 MSC는 이란 기항을 재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컨테이너선사인 UASC도 이란 기항을 재개함
- 항만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안트워프 항만당국(Port of Antwerp)이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이란을 방문하고 비즈니스 연계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보험업계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보험서비스가 금지되었으나 이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많은 P&I 업계에서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 : www.lloydslist.com, 2016.01.24.

김태일 부연구위원
051-797-4613, ktizorro@kmi.re.kr



美 부두운행사 Port America, 오클랜드항 ‘컨’터미널 철수

- 미국 최대 부두운행사인 Port America사는 “West Coast Strategy”에 따라 오클랜드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Outer Harbor Terminal) 철수를 결정했음
 - Port America사는 2009년 오클랜드항만의 Out Harbor Terminal 운영과 관련 50년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운영 6년 만인 2016년 1월에 철수 결정을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르면, Port America사는 향후 30일 이내에 터미널 하역서비스를 중단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모든 터미널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 이에 따라 Port America사의 미 서안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거점은 오클랜드를 제외한 LA, LB 및 타코마(Tacoma)항의 3개 항만으로 재편될 예정임
 - Ports America사는 미국 24개 항만에서 36개 터미널을 운영하며 미국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의 약 3분 1인 1,200만 TEU를 처리하고 있음
 - 기존의 컨테이너터미널 전략 거점은 지역별로 서부의 LA/LB항, 오클랜드항, 타코마항, 동부의 NY/NJ항, 노포크(Norfolk)항, 볼티모어항 및 남부 지역의 마이애미항, 뉴올리언스항, 휴스턴항으로 구분됨

Port America사의 미국 항만 운영 네트워크



자료 : www.portsamerica.com.

- 연간 3,570만 달러의 임대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오클랜드 항만은 공급과잉 해소 및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Outer Harbor Terminal의 기능 재편을 검토할 예정임
 - 오클랜드항만당국은 단기적으로 항만물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터미널을 자동차 화물 처리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부두시설로 기능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오클랜드 항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 운행사 및 항만당국 역시 항만의 저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수익성이 낮은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 수출입 물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항만별 기능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여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 투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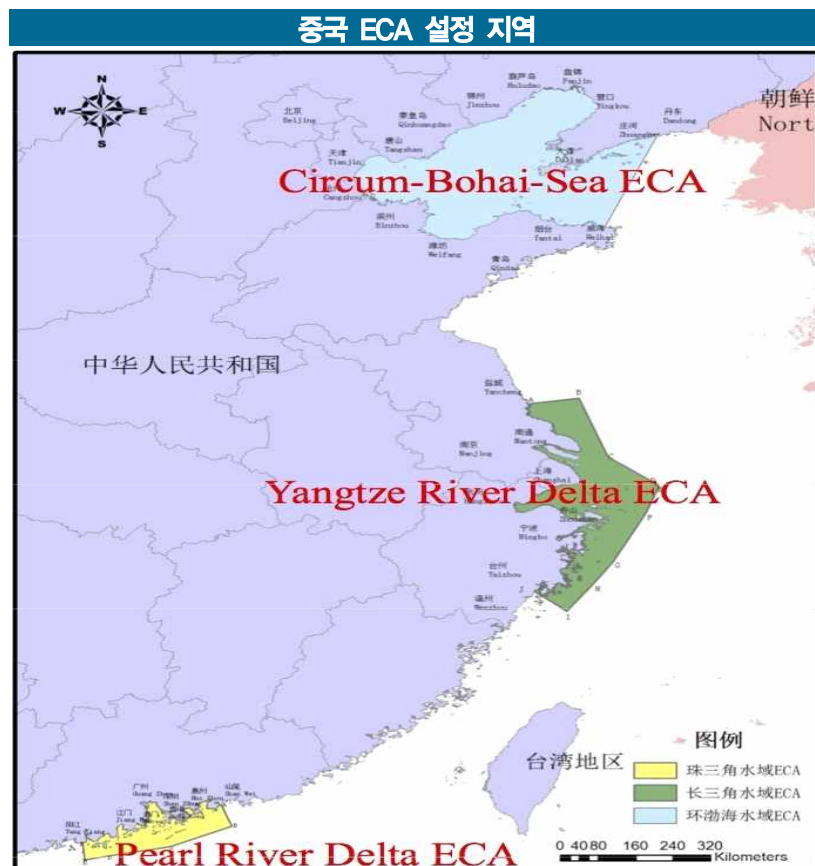
자료 : www.lloydslist.com, 2016. 1. 26.

김은수 전문연구원
051-797-4665, kes1213@kmi.re.kr



중국 선박기인 배출가스 제한구역(ECA) 설정 및 시행 계획

- 중국은 선박기인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중국 내 배출제한구역(ECA) 설정 및 시행계획을 발표함
 - 중국해사국(China MSA,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은 작년12월 중국 내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장강삼각주(Yangtze River Delta), 보하이만(Bohai Bay Rim) 등 3곳을 선박기인 배출가스 제한지역(ECA, Emission Control Area)으로 설정함
 - 이들 지역에 대한 ECA 적용은 단계별로 실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는 ECA 역내 항해하는 모든 상선은 황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 단, 군함, 어선, 레저용 선박은 제외 대상임
 - 올해는 ECA 역내 항만 중 여건이 되는 항만에 한에서 접안이나 묘박시, 황함유량 0.5% 이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범위는 단계별로 확대되어, 내년 1월부터는 ECA내 주요 항만으로 범위가 확장되며, 2018년에는 ECA 역내 모든 항만 내 접안 및 묘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9년에는 ECA 역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함
 - 상기의 규정은 선박 접안 및 묘박시점 1시간 이후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 적용되며, 선박육상전원장치(AMP)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상하이항 등 중국내 11개 항만은 자율적으로 ECA를 적용하기로 함
 - 선박기인 황함유량(0.5% 이하 기준) 배출제한을 자발적으로 시행해왔던 홍콩항에 이어 중국 내 11개 항만에서 자발적으로 황함유량 배출제한을 적용하기로 함
 - 자발적 ECA적용 항만은 센젠항, 광저우항, 저우지양항, 상하이항, 닝보-저우산항, 수저우항, 난통항, 톈진항, 친황다오항, 탕산항, 후양화항 등 11개 항만임
- 하지만 중국 선박 배출가스 제한기준은 기존 ECA 시행지역의 기준 대비 낮은 수준임
 - 중국이 설정한 배출제한기준은 IMO(국제해사기구)의 MARPOL Annex VI의 규정을 충족하는 수준임(2020년 1월부터 황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 사용)
 - 하지만 중국이 설정한 배출제한 규정은 ECA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발틱해(Baltic Sea), 북해(North Sea), 북미(North America), 미국 캐러비안(Caribbean) 지역의 기준인 황함유량 0.1% 이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중국 당국은 황함유량 0.1%이하 연료유 사용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에 검토 후 적용할 계획에 있음

자료 : www.joc.com, 2016.1.25 / 해양한국 보도자료, 2015.12.10. / switchboard.nrdc.org / 한국선주협회

이건우 전문연구원
051-797-4784, gunwoo@kmi.re.kr



해운 산업의 5가지 트렌드

- 시장조사기관 IHS는 해운항만 분야에도 경제적, 정치적, 인구 통계적, 기술적 트렌드가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향후 10년 동안의 해운산업의 5가지 트렌드를 전망했음
- 슈퍼사이클(commodities super-cycle)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경기 침체에 따라 석탄, 철광석, 원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의 침체가 계속되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건화물 운송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함
 - 석탄과 곡물을 운송하는 파나마급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박이 건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선박으로 해운 공급능력 조절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수요 증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상반기 저유가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석탄 대신 원유 수요가 증가하여 탱커 운임이 증가한 것처럼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탱커 운항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 전망
 - 중국은 제품의 슈퍼사이클 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세계 해운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생산능력 초과, 주택 재고 문제, 부채 문제로 2016년 중국 내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 산업 경기 악화와 불안정한 세계 경제 환경은 중국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수출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은 자국내에서 소비되는 철광석 70%, 석탄 20%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나, 중국 건설 시장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철강 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 건화물 수요의 감소로 인해 건화물 운송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코르크용 석탄 수입은 지난 2015년 9월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했으며, 2015년 1~9월까지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7.9% 감소했음
 - 중국의 해상운송을 통한 석탄 수입 감소는 몽골에서의 석탄 수입 증가,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증가, 중국 동부 지역 대도시들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내 석탄 수급지 전환에 따른 석탄 이용 화력발전소 위치의 중국 내륙 지역 이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브라질과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철광석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철광석에 비해 질이 좋고 가격도 낮아, 중국 내 철광석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철광석 수입량은 연간 5~8% 증가하고 있음
 - 해상운송을 통한 철광석 수입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철광석 운송량의 높은 증가세는 예상하기 어려움
 - 현재까지 중국 제철업체들은 덤핑 방지법(anti-dumping Rules)으로 인해 감산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선주와 용선업체들 간의 3~5년 단위 현물 계약은 해지될 가능성이 높음
- 이란의 핵 관련 제재 해제로 물동량 증가 전망
 - 이란의 핵 문제 타결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세계 유류 공급량은 하루 50만 배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란의 유류 수송은 대부분 '이란 국영 탱커선박회사(NITC,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란의 유류 시장 재진출이 전 세계 탱커선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임
- 이란의 1일 유류 생산량은 50만 배럴로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하루 생산량(1,000만 배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세계 공급량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미 낮아진 원유가격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석유, 가스, 석유제품 증가로 세계 운송시장 활성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실적 분석

- 빅데이터는 의사결정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외부 환경 예측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AIS(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 빅데이터의 경우 해상에서 선박 위치 추적은 물론 선박의 운영, 적재 및 하역에 대해 보다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의사 결정자들은 최적의 루트를 선택하고, 날씨, 연료 소모, 그리고 해적 등과 같은 위험도 고려할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이 산업별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는 없지만, 리스크 경감 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해운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함

● 인구통계학의 활용

-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구통계학은 향후 10년 동안 해운 부문에 영향을 줄 것임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국가들의 중산층이 증가하고, 이러한 중산층 소득이 증가하면서 원자재와 완성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인도의 경우 내수시장 소비 활성화를 통해 2014년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7년까지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소비 증가는 컨테이너 수송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항만, 인프라, 기술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첨단시스템에 대한 요구 증가와 기존 인력 관리 및 신규인력 수급 문제가 부각될 것임
- 특히 해운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기존의 해운 인력을 대체할 만한 신규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아시아 조선 산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해운 및 조선업 신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필요하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신기술 교육이 필요함
- 선상 시스템 자동화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항해시 최소의 선원을 투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신규 인력 수급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자료 : www.ihs.com 2016.1.14.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2015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 5.7% 증가

- 2015년 러시아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6억76백만 톤임
 - 처리 물동량 중 수출화물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5억 39백만 톤, 수입화물은 전년대비 23.3% 감소한 33백만 톤, 환적화물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48백만 톤, 연안화물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56백만 톤임
 - 액체화물 처리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3억 64백만 톤으로, 이 중 원유가 전년대비 8% 증가한 2억 2백만 톤, 석유제품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1억 46백만 톤, 액화가스가 전년대비 5.1% 증가한 13백만 톤을 차지하고 있음
 - 건화물 처리량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3억 12백만 톤이며, 이 중 석탄이 6% 증가한 1억 23백만 톤, 곡물은 15.1% 증가한 34백만 톤, 블랙메탈은 12.2% 증가한 26백만 톤, 광물비료가 8.8% 증가한 16백만 톤, 광물은 10.8% 증가한 6.7백만 톤 등임

자료 : <http://tass.ru>, 2016.01.19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DHL, 멤피스 서비스센터 확장

- DHL은 미국 멤피스 지역에 서비스센터를 확장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 3개 주를 대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250만 달러가 투자된 새로운 서비스센터는 멤피스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으며, 이전의 11,000 평방피트에서 30,000평방피트의 규모로 확장되었음
 - 또한 신규 서비스센터는 시간당 2,500개 이상의 화물 처리가 가능해져, 국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해 증가하는 국제 화물운송을 위한 화물의 픽업, 배송, 분류작업을 위한 현지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임
- DHL 미국 남동부 센터의 John Fox 본부장에 따르면, 멤피스 서비스센터는 선도적인 국제 운송거점으로서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것임
 -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센터에서는 국제 수출입 화물의 출하량 확대를 지원하고 단축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언급함
- 이번 서비스센터 확장을 통해 DHL은 소규모 국제화물 뿐만 아니라 파레트와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gscentell.com, 2016.1.20.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